



남원시 농기센터, 찾아가는 청년농업인 교육 실시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읍면별 찾아가는 청년농업인 교육 2회차를 오는 4월 29일에 송동면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코로나로 인한 대규모 집합교육이 불가함에 따라 남원시 17개 읍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해당 읍면에서 교육 진행을 계획했으며, 지난 3월 운봉읍에서 첫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송동면 지재캐주얼리 카페에서 라탄 조명 만들기 진행할 예정이며, 4월 6일부터 20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620-8014)에서 전화로 접수를 받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규모 지역별·품목별 교육 추진을 통해 청년농업인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청웅면, 용추계곡 환경정비 실시

청웅면이 지난 11일 면은 주요 관광지인 용추계곡 일원에 대한 대청소 및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용의 전설을 담고 있는 용추계곡이 최근 소규모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지리매김하며, 백련산 경치가 아름다워 매년 관광객들과 주민 등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환경정비를 통해 면은 용추공원과 백련산 등산로를 중심으로 장기 방치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였고, 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계곡 주변 잡초, 잔가지 등을 제거하였다.

유규영 청웅면장은 "관광객 및 주민들이 공원에 나와 가벼운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진안소방서, 논·밭두렁 태우기 주의 당부

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군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불피해의 주된 원인은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담배꽂초 무단투기 등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다. 이런 화재는 인가 및 문화재 시설까지도 번져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나 소각행위를 통해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의거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오정철 서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화재 발생 위험이 높으며 '취중탄 산탄지연'과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성수면 지사협, 1분기 정기회의 개최

진안군 성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정지호, 이기호)에서는 12일 2022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사업결과, 금년도 역점사업 대상자 선정, 복지사업 사업추진 방향, 주민중심 마을복지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논의했다.

주요 사업은 행복다리 만들기, LED 전등 및 차단기 설치, 어르신 요실금패드 사업이며 주관은 진안군지원봉사센터(성수면 자원봉사단)와 지사협으로 4월~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지호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앞장서 복지사업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더욱 활성화하여 내실 있는 협의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호 면장은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해 재능 나눔과 그 외 다양한 나눔 활동에 동참하는 등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잊지 않고 찾아와 축하해 기쁘고 행복”

효자2동 지사협, 매월 '올로어르신 생신상 차림' 봉사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동장 김혜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현오)는 12일 저소득 홀로어르신을 위한 생신상차림 봉사를 진행했다.

효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월 생신을 맞이한 홀로 어르신 2가정을 방문해 케이크와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한 말벗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생일상을 받은 김모 할아버지는 "가끔 미역국을 끓여주던 이웃도 코로나9로 자주 만나지 못해 홀로 생일을 보내서 아쉬웠다"며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 축하해주니 기쁘고 행복하다"고 전했다.

최현오 위원장은 "정성으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온정을 듬뿍 나누어주시는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홀로어르신이 소외될 수 있어 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하기에 앞으로도 '홀로어르신 생신상차림' 봉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임실군, 김성권·이난희 부부 7년째 애향장학금 기탁

임실을 두민리에 거주하는 김성권·이난희 씨 부부가 12일 임실군을 방문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이사장인 심 민 군수에게 전달했다.

김성권·이난희 씨 부부의 선행은 지난 2016년부터 7년째 이어온 것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쾌척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성권·이난희 씨 부부는 "임실이 나날이 발전하고 교육 환경도 나아져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니 보람도 느끼고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장학금 기탁을 통해 지역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에 심 민 이사장은 "코로나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잊지 않고 기부해 주신 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장학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임실군 애향장학회는 지난 1995년 6월에 설립돼 36억3천3백만원의 장학금을 조성했으며, 1,860여명이 넘는 학생에게 3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지역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병무청장, 군산명화학교 사회복지부요원 격려 방문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권대일)은 12일 군산시 나운동에 위치한 군산명화학교를 방문해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지부요원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은 특수학교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지부요원의 복무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복무기관과 사회복지부요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일 청장은 군산명화학교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소속 사회복지부요원들이 장애학생 활동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복무지도를 당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부요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남은 복무기간에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건강하게 복무해 줄 것을 주문했다.



권대일 전북지방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도내 특수학교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현장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복지부요원들이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교대 박승배 도서관장, 대학 발전기금 전달

전주교육대학교 박승배 도서관장(정보전신원장 겸임)이 대학 발전기금 200만원을 대학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도서관장은 지난 1994년부터 28년 동안 전주교대 초등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학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해 왔다.

이날 기탁식에서 박승배 도서관장은 "대학의 새로운 지평을 향한 총장님의 의지와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대학의 일원으로서 작으나마 동참하고자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박승배 총장은 "오랜 시간 후학들을 길러내고 또다시 대학의 성장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해 준 데 감사드리며, 도서관장님의 뜻을 받아 소중히 잘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은성 기자



새샘노인복지센터, 동서학동 소외계층 밀키트 후원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주민센터(동장 서성근)는 지난 11일 사회적협동조합 새샘노인복지센터(원장 김용진)가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밀키트 25인분을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서학동 주민센터는 이번 기부 물품을 관내 조손가정 및 한부모 가정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새샘노인복지센터 김용진 원장은 "코로나9 장기화로 조손 가정 및 한부모 가정들이 어려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힘든 시기이지만 주변 이웃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비전대, '사랑을 나누는 떡볶이' 행사 진행

전주비전대학교 선교지원처는 12일 캠퍼스 내에서 '사랑을 나누는 떡볶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두번째로 전주생물교과 봉사자들의 섬김으로 펼쳐졌고, 재학생 300여 명이 떡볶이를 나눠 받았다.

정상모 총장은 "코로나9로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대학 학생들을 응원해 주고, 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생물교과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전주비전대가 가진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맛있는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학생들끼리 우정을 나누는 대학생활을 지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는 처음이다"며 "전주비전대학교가 학생들을 위해 소소한 것부터 챙겨 주는 것에 감동받았고, 앞으로 우리학교에서 하는 모든 것에 더욱 신뢰하며 대학생활을 즐겁게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소방서, 의용소방대 산림화재 예방·감시 나서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공은태, 이미숙)가 산림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화재 예방·감시 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10년간 산림화재는 연평균 1,186건으로 그중 67.5%가 봄철에 집중발생하고 있으며, 남원 관내의 산림 9개소와 인접마을 41개소 가구수 1,637로 도내산림수, 인접마을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산림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의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취약지역이다.

이에 연합회는 3월부터 현재까지 6회, 1,104명의 대원이 ▲산림인접주택의 화목보일러 점검 등의 주택안전관리 ▲이동수단, 대피장소 지침물 등 화재시 행동요령 안내 ▲병상시 생활하면서 위험요인 발견할 경우 즉시 조치를 하는 등 생활 속에서 산불감시 및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 등 예방·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광활농협·김제시, 농가 감자수확기 16대 지원

광활농협(조합장 신광식)은 김제시(시장 박준배)와 함께 2022년 김제시 지역상생협력사업'을 통해 감자수확기 16대를 구매해 하우스감자 수확에 투입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김제시 광활면에는 15개 작목반 264농가 563ha의 면적에서 시설하우스 감자를 재배하고 있으며, 전국 불감자 생산량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감자수확기의 신규보급은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시장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로감자작목반 김용휘 반장은 "김제시와 광활농협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자수확기 지원으로 감자 수확작업이 원활할 것 같다"고 전했다. 신광식 조합장은 "앞으로도 농민 조합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발굴을 위해 여러 방향으로 고심하고 발로 뛰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